

SOCIETY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야구는 좋은데...개막전부터 불법주정차 '몸살'

전남대학교 조직 개편
입학본부→입학처 확대

전남대학교는 23일 입학본부를 입학처로 확대하고 재정전략실을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전남대는 전공 자율선택권 확대를 위해 입학본부를 입학처로 개편하고 보다 전문적인 입학 정책을 추진한다.

또 기존 기획조정처는 기획처로 바꾸고, 대학 재정 운영 강화를 위해 재정전략실·재정부처장을 신설했다.

미래전략정책실을 미래전략본부로 확대해 장기 비전·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실행하도록 했다.

학부본부는 교학본부와 기획연구본부로 분리하고 교학본부는 학사 운영·학생지원 등을 전담하고 기획연구본부는 기획·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비교과 교육 관리를 위해 교육혁신본부 내에 교육혁신정책실을, 인공지능(AI) 교육·정보교과 교육 대응을 위해 정보화본부에 정보화본부장직을 새로 만들었다. 또 여수캠퍼스의 연구·산학 협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연구처 산하에 있던 산학연구지원실(여수)을 산학협력본부로 개편했다.

글로벌대외협력처는 대외협력처로 개편해 대학의 대외협력 기능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조정했다. 김인수 기자

주변 길갈·인도 점령... 시내버스 도로 위 승하차 모습도
계도 현수막·과태료 부과 속도무책... "대중교통 이용을"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의 '2025 신한 SOL Bank KBO 리그'가 시작된 가운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도로가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다.

KIA의 올해 첫 홈경기가 열린 지난 22일 오후 광주 북구 임동에 위치한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곳곳에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이를 비롯기라도 하듯 인근 도로에는 불법주차된 차들이 길게 늘어섰다.

광주사회복지회관에서 시작된 불법주차 행렬은 관천철교까지 500여m가량 이어졌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야구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광주시가 무등야구경기장(1037면), 임동공영주차장(295면)을 조성했지만, 야구장 수용 인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은 편도 2차선 중 한 차선을 차지하는 것도 모자라 버스정류장까지 버젓이 자리해 있었다.

이로 인해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정문(임동 한국아미텔로 2차 방면) 버스정류장에서는 승객을 도로 위에 승·하차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를 가로질러 뛰어가는 아찔한 장면도 있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북광주원광어린이



지난 2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에 위치한 북광주원광어린이집 도로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됐음에도 양방향으로 불법주차가 돼 있다.

집 앞 도로에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었지만 양방향으로 차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다.

다른 곳에는 인도 위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어, 보행자가 도로를 걷어가는 위험 장면도 수차례 목격됐다.

수시로 북구청 단속 차량이 경기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방송을 했지만, 불법주

차는 계속 이어졌다.

인근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비슷했다. 일부 차량은 주택가 문 앞에 주차하며 동행 불편을 초래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 정문 앞에 대기하며 출입 차량의 운전자에 입주민임을 확인해야 했다.

한 아파트 주민은 "올해도 KIA가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보여 오늘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 같다"며 "야구시즌만 되면 골목 곳곳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이동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광주 북구는 지난 12일 광주시, 광주 북부경찰, KIA 등과 프로야구 개막에 따른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교통지도 단속 계획을 논의했다.

북구는 개막전 시리즈 기간에 단속차 2대, 견인차 1대를 현장 투입해 즉시단속을 실시했으며, 프로야구 기간 동안 교통흐름에 중점을 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프로야구 시즌 동안 202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교통 흐름을 저해하거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이종·대과 주차, 교차로 모퉁이 주차는 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경찰청, 행안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 선정

광주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 지원 과제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정책과제 전반에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인이 함께 참여해 정책을 디자인하는 활동이다. 광주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 최초로 치안 시책 추진에 공공

서비스디자인 제도를 적용, 국민 중심 실효적 치안 서비스 제공에 앞장선다.

홍보담당관실과 형사과가 주도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에 힘쓰며, 정책기획 단계에서부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 새로운 방식의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경진 기자 looks@gwangnam.co.kr



화순 세량지 시 항원 검출로 출입통제 23일 살 폐사체에서 H5형 AI 항원 검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세량지가 출입 통제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2,500명
선착순 마감

2025. 05. 11. 09:00 풀코스 출발

전국의병 마라톤대회

의령공설운동장 및 코스일원

ROOPS MARATHON LOYAL ROOPS MARATHON

접 수
2025. 4. 20(일)까지

참 가 비
풀하프 (35,000원)
10km (30,000원)
5km성인 (15,000원)
5km청소년 (10,000원)

접 수 방 법
홈페이지 접수
(www.urmarathon.com)

문의
055-751-1085

2025. 4. 17. [목] ~ 4. 20. [일]

제 50 회
의령의병장군축제
의령군민행복행진

츄츄한 교육복지로 광주 학생 '꿈·희망' 지원

시교육청, 꿈드림 대상 중2·고3까지 확대 추진
1인당 100만원 바우처... 희망사다리재단 운영도

광주시교육청이 츄츄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운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학교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시작된 '꿈드림' 교육복지 지원 사업은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다자녀가정,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탈북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바우처는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바우처 사용자를 집계한 결과, 서점(31%), 독서실(21%), 안경점(20%), 문구점(14%), 원서접수 등에 활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목한 역

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학부모의 사업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5662명 가운데 96%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6%가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기타 의견으로는 사용자 확대, 지원 대상 확장 등이 있었다.

시교육청은 올해 꿈드림 사업 대상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2·3학년 학생으로 확대해 더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습과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2026년까지 모든 중·고등학생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희망사다리재단을 통한 복지정책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재단을 통해 지난해까지 101명의 장학생을 지원했으며, 23가구의 공부방 환경을 개선했다. 저소득층 고 3학년 학생 755명(55개 학교)의 석식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

의 부모님 고향 방문,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 예술극장 등을 운영했다.

올해는 아동복지시설 학생 지원, 사회적배려 학생 지원, 미래인재 육성, 교육가족 문화체험소통의날 운영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이 밖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각각 10만원과 30만원씩의 입학준비금을, 졸업예정자에 대해서는 1인당 6만원의 졸업앨범비를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내·외부 협력을 강화해 학생맞춤 통합지원 사업 운영을 고도화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총 120개교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윈팀이 돼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 보호망을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산구 고려인 역사기록물 국가적 활용 '첫발'

광주 광산구는 23일 대한민국 국회도서관과 월곡고려인문화관 '컬'이 소장한 고려인 역사 유물의 가치 보존과 활용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려인문화관은 지난 21일 문화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국회도서관과 '고려인 역사 문화 자료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우원식 국회외교장과 국회도서관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광산구가 올해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

인 '고려인 역사 유물 디지털 아카이빙(자료 보관 전산화) 사업' 결과를 등을 국회도서관 이용자 누구나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협약의 핵심 내용이다.

광산구는 고려인문화관의 유물 보존과 전시 확장성을 위해 전체 유물을 디지털화해 아카이빙하고, 온라인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든 고려인 역사 기록물을 만날 수 있는 '사이버전시관'을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디지털 정보자원의 상호 공유·공동 활용 증진 △고려인 관련 학술

연구 및 교육 문화 프로그램 협력 등 고려인 역사 문화 자료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디지털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국회도서관은 고려인문화관 1층 주민소통방 '금결'에 국회전자도서관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고, 문화관 방문객 누구나 자료를 살펴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회도서관은 협약에 앞서 월곡고려인문화관이 있는 월곡1·2동 지역 작은도서관에 도서 350권을 기증했다.

임정호 기자 jin4415@gwangnam.co.kr